



| 특집 |

특집 : 중-러 북극항로 컨테이너 복합운송 'Arctic Express No.1' 서비스 시작

영산대 북극물류연구소(IAL, YSU) 2024. 8. 20.

1.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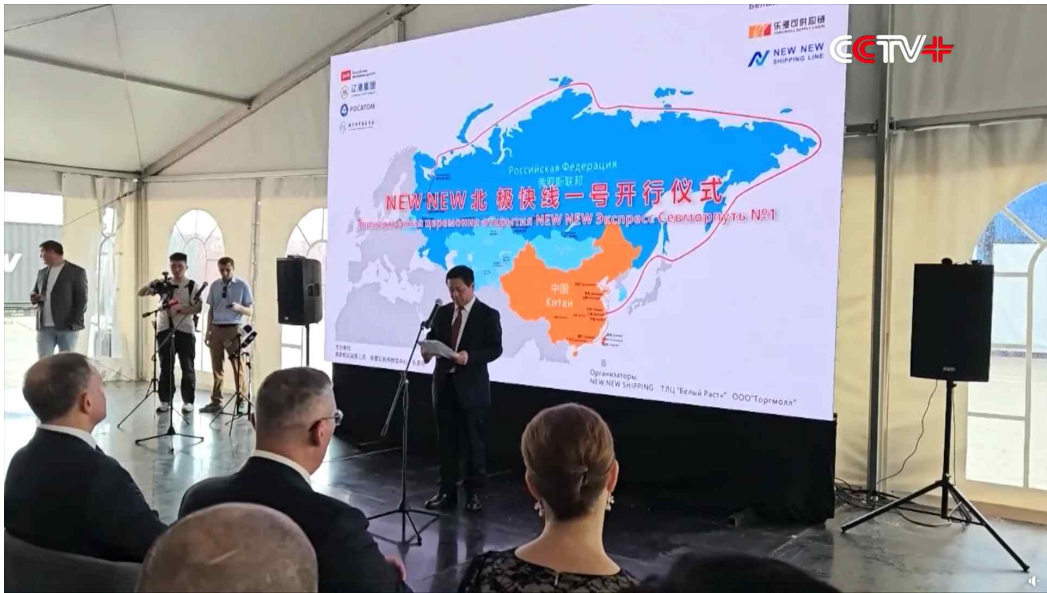
- 7월 초 모스크바 소재 물류센터에서 러-중 양국간 북극해항로(NSR) 경유 새로운 복합 운송 루트인 'Arctic Express No.1' 서비스 출범식이 열렸음.
- 모스크바 - (철송) - 아르한겔스크 - (북극해항로) - 중국 항만(상해, 닝보)으로 이어지는 Arctic Express No. 1 복합운송 루트가 러시아 Rosatom과 중국 선사 New New Shipping사 간의 협력으로 시작되었음.
- 올해 이 복합운송 루트를 통해 10회 (수출 5회, 수입 5회) 이상 항해 예정으로, 컨테이너 2만 TEU 운송 계획이라 함. 수에즈 운하 경유 시 40일 소요, 상기 루트 이용 시 20-25일 소요 예상되어 물류비용이 절감될 것임
- 동 서비스는 수에즈 운하의 불안정성에 따른 새로운 공급망 구축 시도이며 동시에 서방 제재에 따른 러-중간 전략적 물류 협력 강화 일환임. (참고: 2023년 러-중 교역량은 2,400억달러로 2022년 대비 26% 증가하였음)
- New New Shipping의 독점적인 북극해항로 컨테이너 정기운송 입지가 강화되고 있음

2. 북극해항로 컨테이너 복합운송 "Arctic Express No.1" 세부 내용

1) 'Arctic Express No. 1' 운항 개시

(1) Arctic Express No. 1 서비스 출범식

- 7월 5일, 모스크바 벨리 라스트 물류센터(철도역)에서 Arctic Express No.1 출범식이 열렸음. 모스크바-(철도)-아르한겔스크-(북극해항로)-중국 상해로 이어지는 Arctic Express No. 1 복합운송 경로가 Rosatom과 New New Shipping사의 협력으로 시작되었음. 러시아의 단일의 북극해항로 관리기관인 Rosatom은 북극해항로에서의 쇄빙지원, 중국 소형선사 New New Shipping사는 북극해항로 컨테이너 정기 운송을 담당함 (양측은 2024.6. 협정 체결).



[Arctic Express No. 1 출범식]

(2) Arctic Express No. 1 서비스 세부 내용

- Arctic Express No. 1은 철도-해운의 복합운송 서비스임. 모스크바에서 아르한겔스크까지 철도로 화물을 운송하고, 아르한겔스크에서 중국 New New Shipping사의 선박에 선적하여 북극과 북태평양을 거쳐 중국 항구(상해, 닝보)로 운송함. 약 13,200km(철도:1,200km, 해운:6,600해리)에 해당하며 20~25일 소요됨.
- 중국 New New Shipping사는 컨테이너선 운항을 담당하고, 러시아 Rosatom사는 항로 선정 및 쇄빙 에스코트 서비스를 담당하게 됨.
- 이 항로는 기존 해상 운송로(수에즈 운하)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혼잡이 최소화되는 장점이 있으며, 글로벌 해상운송 전략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 New New Shipping사가 설명함. 수에즈 운하 경유 기존 항로 대비 수송거리가 5,000~8,000km 짧고 최소 20일 절약 가능함.

(3) 러 북극 아르한겔스크항, 북극해항로 관련 컨테이너 운송 착수

- 아르한겔스크항을 통해 올해 총 10회(수출 5회, 수입 5회) 컨테이너선 운항 예정임
- 러시아 툴라 Naval공장(중국자동차 공장)의 조립부품 공급 컨테이너 440TEU가 운송된 것으로 알려졌다.
- 아르한겔스크에서는 모스크바에서 출발한 컨테이너와 러시아 목재 등 자원이 적입된 컨테이너가 선적된 것으로 보임.

(4) Arctic Express No. 1 투입 컨테이너선

- NewNew Shipping사의 선박 네 척(Xin Xin Hai 2, Xin Xin Hai 2, Xin Xin Shan, New New Moon)이 북극해항로 통항 허가를 받았음.

선사	TEU	내빙등급	현위치(2024/8/20)	항해 기한
Xin Xin Hai 1	1,220	Ice 2	카라해 (중국항만 항)	2024/10/31
Xin Xin Hai 2	1,220	Ice 2	아르한겔스크항(하역)	2024/10/31
Xin Xin Shan	1,706	Ice 1	동시베리아해(아르한겔스크 항)	2024/10/31
New New Moon	2,062	No	서해(보스토치니항 항)	2024/10/15

2) Arctic Express No. 1 루트 개설 배경

(1) 중국-러시아간 교역량 증가에 따른 새로운 무역루트 개발 차원

-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중국과 러시아는 정치적, 경제적으로 더욱 가까워졌음. 2023년 러-중 양국간 교역량은 2,400억 달러로 2022년 대비 26.3% 증가하였음. 반대로 미국-중국 간 무역은 2019년 이후 처음으로 감소하여 2022년 대비 2023년 11.6% 감소했음.

(2)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성 극복을 위해 북극항로 개발 박차 (북극항로 개발 논리)

- 수에즈 운하, 말라카 해협 통과 운송 취약성 회피 차원

(3) 북극항로 개발 관련 양국의 이해 관계

- 중국은 Polar Silk Road 개발 관점에서 북극항로 활용을 추진하고 있음. 쇄빙연구선 건조와 북극해 탐사 경로를 볼 때, 상업적 관점 이외에 안보, 군사적인 관점도 감안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러시아가 북극해 운송시장 활성화를 위해 우호 국가와 협력을 추진하는 것은 불가피하며, 다른 대안이 없음

(4) 러 북극 아르한겔스크항, 무르만스크항과의 경쟁 (북극해항로 거점항구 역할)

- 무르만스크항은 북극 컨테이너 셔틀에서 유럽 향 허브항으로 고려되었음. 아르한겔스크항은 모스크바와 연계된(철송) 북극해항로 이용 복합운송 허브로 북극해항로 거점항구로서의 역할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임

3. 중국 선사 New New Shipping의 컨테이너선 운항 지속

1) 2023년 중국 New New Shipping사의 북극해항로 7항차 항해

- 중국 소형선사 NewNew Shipping사가 2023년 7월 북극해항로 컨테이너 정기 운송을 시작했음. 모두 5척의 선박이 7항차 항해했음. 중국항(칭다오, 상해, 천진)과 상트 페테르부르크간을 항해하면서 필요시 블라디보스톡이나 나호드카 그리고 무르만스크나 아르한겔스크에 기항했음.
- 2023년 New New Shipping사의 New New Polar Bear호는 2023년 10월에 발생한 가스파이프라인과 통신 케이블 손상에 연루되었다는 의심을 받았음.
- New New Shipping사의 선박은 북극해항로 항해가 종료된 이후에도 러시아 발트해-중국항 간 14항차의 화물 운송을 지속했었음.

2) 발트해 항로 항해 지속

- New New Shipping사는 발트해 러시아 항에 대한 컨테이너선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음. 특히 2024년 6월 러시아 Delo Group이 소유한 Ust-Luga Container Terminal에 New New Star 호가 기항했음. 러시아의 수출용 목재가 적입된 400개 이상의 컨테이너를 선적했음. Ust-Luga항의 수심은 흘수 12미터 초과 선박을 수용할 수 있음.
- Rosatom은 올해 북극해항로를 통해 최소 5,000만톤의 화물을 운송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발트해 Ust-Luga항과 중국항을 연결시키는 북극해항로 통과 운송에 대한 논의도 있는 것으로 보임

3) 중-러 양국간 북극항로 컨테이너선 운송 관련 협약 체결

(1) 5월 8일 중국 New New Shipping과 북극해항로 컨테이너 운송 협력 협정 체결

- 아르한겔스크 주지사 Alexander Tsybulsky, 아르한겔스크 상업항(AMTP) 총책임자 Tsetsen Goryaev, Torgmall LLC의 총책임자 Elena Maksimova가 서명했음. 문서 서명에 앞서 진행된 회의에 토그몰의 파트너사 뉴뉴шип핑 케 진 사장이 참석했음. 협정의 주요 목표는 아르한겔스크 항구에서 북극해항로 경유 수출입 컨테이너 운송을 위해 당사자 간 장기적이고 상호 이익이 되는 협력을 보장하고 화물 환적량을 늘리는 것이었음.
- 이 협약에서 Torgmall 회사가 NSR 항해기간 동안 중국 항구에서 아르한겔스크 항구까지 10-12회 해상 운송 조직을 보장한다고 정했음. 뉴뉴шип핑 케 진 사장은 4척의 선박을 투입할 것이며 러시아 철도를 활용하여 아르한겔스크에서 모스크바로 화물을 보낼 것이라고 함. (참고: 아르한겔스크항의 최대 흘수 9.2m, 최대 중량 35,000톤 선박 수용 가능)

(2) 2024년 6월 New New Shipping사와 Rosatom사간 협약 체결

- 중국 New New Shipping사와 러시아 Rosatom사간 연중 컨테이너선 운항을 위한 새로운 합작회사 설립에 대한 협약을 체결했음.
- New New Shipping사와 Rosatom은 새로운 합작회사를 설립하여, 북극해항로 연중 항해를 위한 5척의 내빙컨테이너선(Arc7)을 건조하고 2027년에 1호선을 인도하기로 했음. 합작회사는 더 많은 화물량을 처리할 아르한겔스크와 무르만스크항을 기항항에 포함할 것임.
- 양사는 2031년까지 북극해항로를 통해 2억 톤의 화물을 운송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장기적 목표는 2035년까지 18억 톤이 이 경로를 통과하는 것임.
- 합작투자는 2024년 8월에 마무리될 예정임.

4. 영산대 북극물류연구소(IAL) 의견

1) 북극항로 개발 관련 중국과 러시아간의 밀착관계 지속 우려됨

- 2022년 2월 우크라이나전쟁 이후 러시아정부는 북극해항로(NSR) 개발 관련 러시아의 우호국가들 중 특히, 중국과의 북극해항로 개발 협력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음. 중국정부는 Polar Silk Road 추진을 목표로 하고, 러시아는 북극항로 개발 관련 화물 확보, 컨테이너선 정기 운송, 내빙선박 건조 역량 등 면에서 중국의 협력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임.

2) 중-러 양국간 교역량 증대에 따른 새로운 무역 루트 개발 차원

- 러시아에서 서방의 상품들이 대거 철수하면서, 그 틈을 중국산 제품들이 메우고 있음. 작년 양국간 교역량은 26.3% 증가했고, 당분간 이러한 교역량 증가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임. 이러한 수송수요 증대에 따라 새로운 무역 루트가 개발되고 있는 것임.

3) 중국선사는 서방제재 영향없이 북극해항로로 모든 종류의 화물운송을 할 수 있을 것임

- 중국 선사는 컨테이너 운송과정에서 제재 없이 모든 화물등을 수송할 수 있을 것임

- 한국 화물들이 중국 선박으로 북극항로로 수송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작년에도 중국 New New Shipping의 내빙선박이 부산항에 입항한 적이 있음. (한국 화물 선적 여부는 확인하지 못한 상태임)

4) 중국 선사들의 북극해항로 운항 패턴

- 하절기 운항시즌 5개월간(7-11월)은 북극항로 경유 운송(복합운송 포함)하고, 그 외 기간엔 수에즈운하 경유 운항을 하여, 복합적인 정기 컨테이너운송을 지속할 것으로 보임.
- 중국 선사 Safetrans사의 4,000TEU급 선박 두 척이 북극해항로 통항신청을 했으며, 현재 동아시아 해역에 있음. 아직 북극해항로 운항 여부 확인되지 않은 상태임.

5) 당분간 북극해 운송시장에서 중국 선사의 독점적 입지는 지속될 것으로 보임

- 지정학적 위기 하의 중-러 협력 속에서 중국 선사 New New Shipping의 독점적인 컨테이너 정기운송으로 다른 외국선사들의 경우 북극해 컨테이너 운송시장 참여가 점점 더 어려워 질 것으로 예상됨.

주요 참고문헌.

www.vedomosti.ru, 2024.7.5. www.morvesti.ru, 2024.7.8. 2024.8.9.

www.arcticports.ru, 2024.8.8. www.bigasia.ru, 2024.7.10

www.maritime-executive.com, 2024.7.11.

<https://www.yicaiglobal.com>, 2024. 7. 18

<https://www.bssc.pl>, 2024. 7. 22

<https://interfax.com>, 2024. 7. 8

<https://railmarket.com>, 2024. 7. 10

<https://theloadstar.com>, 2024. 7. 8

<https://www.bairdmaritime.com/>, 2024. 6. 10

48015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반송순환로 142 영산대학교 북극물류연구소 (E동 5103호)

TEL 051) 540-7350, e-mail : ial@ysu.ac.kr

Copyright Institute of Arctic Logistics, 2021, All Rights Reserved

끝.